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옥
배재대학교 교수

이번 메르스(MERS) 전염병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부재이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이후 이에 대한 찬반의 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와 지방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도 교육감 사이에서의 갈등 혹은 협력 부재 현상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이다. 작년 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 사이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두고 벌어진 힘겨루기, 올해 발생한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

진화 중인 중앙-지방 관계

양정부와 지자체, 시도 교육감 간의 갈등, 그리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경남 도내 시장·군수들 간의 갈등 등은 좋은 사례들이다. 시·도 교육감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적인 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모든 사례들은 상이한 수준의 정치권력 간 갈등 내지 협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혹은 상이한 수준의 정치권력 사이)에서의 갈등은 당연한 일이며, 실제로 지방분권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수평적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서로 갈등하듯이, 수직적으로 나누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력 또한 갈등하게 되어 있다. 권력은 나누어 지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법으로 두 정부의 영역과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도 실제 정치 과정과 정책 과정에서 정부 간 영역 다툼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분권화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오랜 중앙 집권화의 전통과 미약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열세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독립적인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성과 자원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앙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환경에서 점차 지방의 힘이 강화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대조적인 해외 사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공화국 출발 당시 주정부의 힘이 연방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연방정부의 힘이 강화된 사례이다. 반면 대표적인 단방제 국가인 영국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면서 지방정부의 힘이 강화된 사례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의 하나는 중앙-지방 간 관계가 늘 균형을 찾아 진화하고 있으며, 그 균형점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시사점은 이러한 진화 과정

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권력을 가진 쪽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양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심지어 내전까지 있었으며, 미국정치의 역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관계의 진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지방정부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지방정부와 수장의 끊임없는 혁신과 주도권 행사 노력이었다. 한국은 현재 지방 열세 상황에서 중앙에 대한 지방 권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방선거가 계속되는 한 멈출 수 없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종 자치단체와 그 수장에 의한 혁신과 주도적 역할 수행은 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중앙-지방 간 관계의 변화와 진화 과정을 적절하게 수용함과 동시에, 양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의료칼럼



박상현
세계로병원 원장

직장 경력 20년차인 김모(48)부장은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다. 끊어지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금연을 미루고 있던 차에 최근 오전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 왼쪽 가슴이 빠근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작년에 직장 입사동기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가 연상돼 꺼리직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심장마비로 알려진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이 근육이 과사하여 생기는 치명적인 사고다.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대사성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망한 직장동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질환은 하나도 없었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다. 다만 김부장이 근무

급성심근경색과 돌연사

하는 회사의 특성상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업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편인데다 사망한 동기의 경우 지나칠 정도로 흡연을 즐겼었다. 김부장 역시 애연가인데다 주량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폭음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더욱 불안해진다.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 사고로 사망한 환자 중 50%는 전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관련 병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들을 '돌연사 증후군'이라 일컫는다. 돌연사는 치명적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조차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정리도 안되고 가족들의 입장에서조차 급사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돌연사는 왜 일어났을까? 앞서 말했듯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치명적 질환이다. 일단 완전히 막히고 2~6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관상동맥은 혈전이 쌓여서 서서히 막힐 수도 있고(물론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어느 정도 대비는 가능하다) 사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막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환자의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 혈관의 구조를 보면 혈관의 가장 안쪽 부분은 내피세포가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 덮여 있어 혈류의 거친 흐름에도 우리 혈관을 잘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겪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촉진해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한편, 혈관을 수축시켜 동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주로 혈관이 갈라지는 분지관이나 혈관이 곡선모양을 이루는 지점에서 혈류속도가 빨라진다. 이에 따라서 혈관곡선의 안쪽 부분에 혈액이 재순환(역류)하는 과정에 내피세포가 거꾸로 말리면서 혈관내막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고 거기에 혈소판이 응집되면서 순식간에 혈전이 쌓이게 된다.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 마치 방아쇠를 당기 듯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혈관의 극단적인 수축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막히게 돼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피떡이 엉겨 붙는 것을 연상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미리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보건원은 코로나이저라는 장비를 도입했다. 코로나이저는 맥박을 이용해 비 침습적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다. 비침습적 검사는 X선 검사나 CT 촬영처럼 인체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하는 검사를 뜻한다. 이 장비는 심장 부위의 피부에 붙이는 센서를 통해 심박출량과 심혈관 동맥경화도, 관상동맥 혈류량, 혈류 속도, 혈류 저항 등을 계산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발병 위험을 진단할 수 있다. 최근 특허를 받은 장비로, 기존처럼 동맥경화도만을 검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장의 수축·이완 전 과정에서의 혈압 및 혈류의 특성을 파악해 심혈관의 구체적인 상태를 분석하고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식습관의 개선과 더불어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보리는 마추지는 스트레스 효과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줄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끊어야 산다.

社說

자가 격리 대상자 자녀가 학교에 다녀서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체계가 무너지면서 학교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가 2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 자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극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는 메르스의심 격리 대상자의 자녀 10명에 대해 등교 금지 조치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가 격리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부모가 자가 격리된 이후에도 사흘간 학교와 학원 등지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아버지는 순창 모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 지난 5일부터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학생을 9일부터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허술한 방역체계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학생을 학교에 다니게 한 부

모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학교와 시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해당 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 모두 별다른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메르스 확산은 병원 내 감염에 국한돼 있으나 자가 격리 대상자의 자녀가 학교와 학원 등지를 다닌다면 지역 사회 확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피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광주·전남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메르스 확산이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학교, 보건당국 간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 개개인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당국의 지도와 조치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광주 도심하천 오페수로 몸살 앓다니

광주지역 주요 하천이 쓰레기와 폐수로 오염되고 있다. 공단에서는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주민들도 생활하수를 마구 버리는가 하면 축사의 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광주하천네트워크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천과 소태천, 풍영천, 평동천, 황룡강 등 5개 하천이 모두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천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와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소태천은 주변 농지와 공장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풍영천은 인근 하남공단의 폐수를 물론 일부 지역에서 생활하수가 쏟아져 들어와 악취까지 풍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동천은 축사에서 분뇨를 쌓아 놓는 바람에 우천시 그대로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황룡강도 생활하수와 함께 일부 유원지 식당의 오페수가 흘러들어가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과 농가, 식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하천 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광주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광주시의 관리체계 문제도 노출됐다. 휴식과 레저 공간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광주천이 광주시나 환경단체 등의 노력으로 오염도가 낮아졌지만 아직도 도로나 다리 등에서 비점오염원이 직접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관리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축산 분뇨와 폐수의 수거와 처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관리도 부족하다. 도심의 하천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다. 생태 하천 살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한다. 광주시도 쓰레기 투기 방지와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등 시민의식과 취를 위한 홍보·단속 강화와 함께 예산 투입, 대대적이고 정밀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류 역사의 3대 적을 꼽으려면 전쟁, 굶주림, 역병 등을 들 수 있다. 역사는 인류가 이들 3대 적의 도전을 극복해 낸 생존의 기록인지도 모른다. 이 중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것은 사망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던 역병이다. 전쟁이나 굶주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만 역병만은 속수무책으로 하는날 쳐다봐야 했기 때문이다.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역병의 발생이 나감에 따라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역

의 4분의 1이 숨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인류 역사를 철기시대로 이끈 히타이트 제국도 천연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기원전 14C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이집트와 한창 싸움을 벌였던 히타이트는 천연두에 걸린 이집트 포로로 인해 전염병이 제국 전체를 휩쓸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역병이 창궐하면 국가가 민심을 살렸으며, 왕이 제사를 지내는 등 국가 전

인류의 적 역병

을 지내는 등 국가 전체가 '근신 모드'에 돌입했다. 심지어 지방 관리들도 관할 지역에 역병이 생기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근신하거나 사직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부여시대에는 역병이 돌면 왕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 강국이라는 우리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대처가 일심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속성에서 중국보다 뒤져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감염 병원을 공개하라는 국민 요구도 묵살했다가 감염자가 확산되자 미처 못해 공개한 것 역시 민심을 두리워하지 않는 태도 같아 씁쓸하다. /최희종 사회팀장chaee@

기고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식생활문화와 자원으로 향토음식을 들 수 있는데, 전주 비빔밥, 나주 곱탕, 춘천 막국수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는 많은 전통 음식이 있다. 광주에서는 5미8경이라 하여 광주전통식 등 5가지를 향토음식으로 들고 있지만, 대표음식은 말 그대로 가장 상징성이 크며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1개의 품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예전부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는 추진 주체의 부재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리밥을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지정하자

여기에서 필자는 오래도록 아련한 향수가 서려있는 '보리밥'을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보리밥은 보리밥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보리죽·보리국·보리떡·보리순 나물·보리순 김치·보리수단(水團)·보리고추장·보리즙 등 보리관련 음식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의미다. 사실 우리민족에 있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보리는 쌀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구려 주몽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재배의 역사를 가졌으며 '충분한 물을 가진 논'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요하는 벼보다 재배관리이 훨씬 광범위하다. 보릿고개(麥餓)라 일컬어지던 식량이 바닥나는 춘궁기에는 민초들의 허기진 배를 다독여주던 고마운 작물이었다. 이른 봄철의 보리 순은 흥여옛곡 같은 국가리와 나물의 재료였고 4~5월의 풋바심한 보리날알은 황금 같은 양식이 되었다. 보리밥이 대표음식으로 지정되어야 할 긴요한 당위성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특색 있는 분

화관광자원의 발굴을 위해 보리밥과 관련된 음식이 집중 육성되어야한다. 오늘날의 관광은 문화재나 명승지 등 전통적인 볼거리 위주에서 특별한 먹거리와 다양한 서비스가 증시되는 소프트 콘텐츠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한정식, 송정떡갈비, 오리탕 등의 향토음식과 더불어 지역 대표음식으로서 보리밥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켜나가는 투트랙(two track) 방식의 지역전통음식 마케팅의 전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보리소비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근래들어 식생활의 서구화추세는 쌀과 보리 같은 주곡의 급격한 소비감소를 가져와 농민들의 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밀이나 콩, 옥수수 등의 막대한 수입은 외화의 유출은 물론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점진적인 보리소비의 확대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의 절약과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보리는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서

미래성장성이 유망한 곡물이다. 보리밥은 곤궁한 지난시절의 향수와 함께 영양과잉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음식이다. 찹쌀이 딱딱리로서 다양한 식품개발의 소중한 원천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큰 것이다. 이처럼 보리는 알곡과 어린 싹, 사료용의 푸른 줄기, 맥간공에 재료인 보릿대 등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보배로운 작물이다. 보리밥의 대표음식 지정문제는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제로섬(零和) 게임이라는 편협한 시각을 뛰어넘어, 지역전체 문화관광상품의 영역을 키워나간다는 상호협력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성을 가진 음식문화도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개성적이고 독특한 차별성이 전제되었을 때에 보다 내용과 깊이에서 충실도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제 뜻있는 시민들의 머릿속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광주의 대표향토 음식 문제가 하루속히 공론화·구체화되어 '맛의 고장(味鄕)' 또는 '음식문화의 도시' 광주의 새로운 핵심관광자원으로 탄생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